

탐방

한국코사리베르만(주)

미래 포장산업 긍정적으로 판단 사업강화

기술영업으로 시장다져

1954년 국내 설립

국내 포장업계에는 이미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해 시장 깊숙히 파고들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4년 설립된 한국코사리베르만주식회사는 서울에 본사를, 대구에 지방서비스센터를 두고 동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코사리베르만 그룹은 스웨덴 헤게마이어 코사리베르만 그룹의 계열사로서 현재 중국, 홍콩, 일본, 한국, 타이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이페이, 베트남, 인도 등지에 지사를 두고 있다.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자동차산업, 항공기산업, 건설, 통신, 광석, 과학·제약, 식품이나 식음료, 포장·섬유 등 각종 제조설비와 인쇄관련 장비 일체, 전자·환경관련 장비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300여명이나 되던 직원이 최근 영업부진 품목을 대폭 축소하여 현재는 기술영업 100명, 소비상품부 30명, 회계·총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영업부는 그동안 단순히 세일의 개념에 머물러 있던 것에서 벗어나 기술을 뒷받침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스위스 본사 테

크놀로지 서비스센터 영업원들이 뒷받침해 주는 기술력을 국내 유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비상품부는 헤게마이어 회사가 주주로 되면서 신설된 부서로 주로 액세서리, 발리슈즈 등을 취급하여 유럽패션을 한국에 공급하고 있다.

코사는 공작기계, 컨버팅, 프린팅, 화학플랜트, 식품가공, 포장재인쇄, 제지 등을 취급하여 연간 약 2억원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중 섬유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스키아비 포장설비 국내에 선보여

15년전부터 포장과 관련된 품목을 취급하기 시작한 코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포장기계 및 컨버팅 설비업체로 카톤다이컷팅, 중포장용 그라비아기계, 플렉소기계 등을 생산하는 Bobst 계열사의 모든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schiavi의 그라비아 인쇄기, 플렉소 인쇄기, 라미네이터기계를 국내에 소개한 후 국내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인식하고 거의 영업활동을 중지해 왔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특히 잔류용제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업계의 관심이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에 도입코자 지난 3월 유저에게 기기를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schiavi사의 코팅 및 라미네이팅기는 그라비아 인쇄기계 및 플렉소 인쇄기계를 제작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고속에서도 2배 또는 3배 연속 가능하고 이외에 바니쉬, 솔벤트, 수성 또는 solventless접착 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설계됐다. 또한 유저의 요구에 따라 수직 또는 수평으로 제작하여 코팅 유닛을 그라비아인쇄기계와 같이 trolley만 교체하고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됐다.

schiavi의 roto cardets는 식품포장 관련 연포장 인쇄업계에서 당면하고 있는 유기용제의 사용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91년부터 일본 Toyo잉크와 끈질긴 연구끝에 공동개발한 것으로 100% 수성잉크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인쇄 속도 또한 220m/min까지 실현 가능한 최신기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기계는 100% 수성잉크를 사용토록 설계되어 솔벤트 잉크 사용 시에는 300m/min까지 고속인쇄가 가능한 기종이다.

**시대앞선 제품 공급에
어려움 느껴**

11년간 코사에서 기술파트를 맡아오고 있는 이현열 부장이 세일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것은 기술의 뒷받침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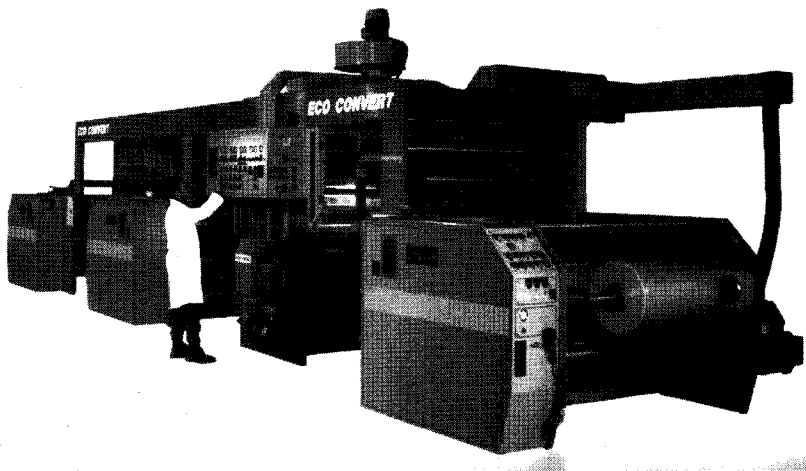
“포장은 캔, 유리, 페트, 종이 등 매우 광범

[표 1] 동력비교표

구 분	솔벤트 라미네이팅	Solventless
필요 동력	50kwh	31kwh
에너지 생산능력	280kwh	-
생산 속도	최대 400m/분	최대 400m/분
접착제 소모량	2.58㎡	1.7g/㎡
접착제 구입가	4.6U \$/kg	3.4U \$/kg

위하지만 국내는 그중 연포장이 가장 낙후돼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영업을 할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환경오염, 생산성의 장점을 유저들에게 인식시키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성잉크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현재 진지하게 상담중인 업체도 있습니다”라고 밝히는 이 부장은 “국내 연포장기술이 동남아와 비교해 상당히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단장비 보유면에서는 그들보다 떨어져 이런 추세로 간다면 연포장업계가 수출에도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코사는 그간 선진국의 첨단기계를 도입하여 공급함으로써 국내 메이커들의 개발 의지를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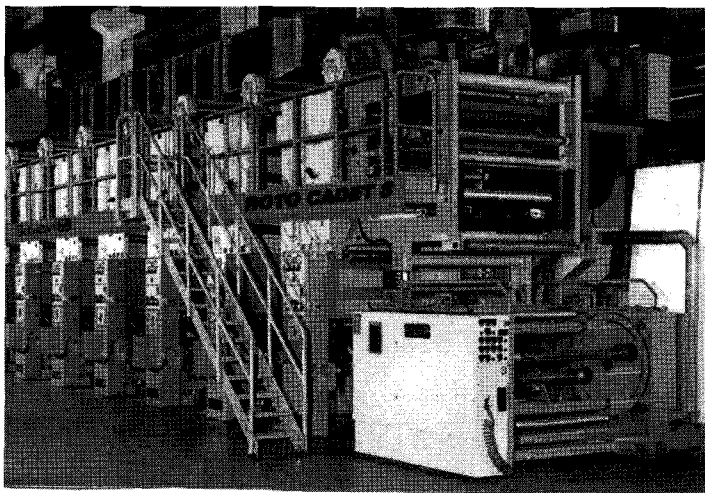


▲ 코사가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스기야비의 Solventless 라미네이팅기

극하는 역할도 해왔다. 최근에는 라미네이팅기 도입을 위해 타업체와 적극적으로 교섭중인데 그와 관련한 기술자료들을 전부 모아 자료화시켜 거래업체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한 여름 무더위도 잊고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는 이 부장은 “라미네이터의 경우 국내에는 dry laminator, 압출라미네이터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럽은 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작업자에게 불리하다 하여 이를 꺼려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압출이나 드라이 라미네이터를 사용했을시보다 wax, wet라미네이팅을 했을 경우가 30~40% 생산원가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장점을 가지고도 국내 공급이 더디지는 이유는 공급하는 solventless 라미네이팅기의 접착제가 국산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표 2] Roto Cadets의 기술적 데이터

Working widths:	600~800mm	650 to 1450mm
Printing cylinder repeats:	350 to 800mm	450 to 950mm
		400 to 950 mm <small>(if integral shaft cylinders are used)</small>
Printing speed	up to 350 m/min	



▲ 수성잉크를 사용하는 코사의 그라비어 인쇄기(ROTO CADETS)

“지난 96인터팩에서 펄프와 플라스틱에 관한 흥미있는 토의가 있었습니다. 독일정부가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규제를 강화해 왔는데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 자체적으로도 방법상의 문제가 있었는가 돌이켜 보았으며 진정으로 종이보다 플라스틱이 환경에 유해한지에 대한 공방전이 있었습니다”라고 밝히는 이 부장은 이에 플라스틱업계는 종이는 나무를 베는 것부터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며 이에 반해 플라스틱은 석유자원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종이보다 환경에 덜 유해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포장환경국이라는 독일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을 보면 국내 플라스틱포장업계도 지금까지와 같이 비관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코사의 포장관련 파트는 총 8명으로 기술영업 4명, 서비스 4명이며 올 12월이면 2명을 총원하여 영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럽기술과 정보를 수집하여 시장을 검토하고 영업을 확대시켜 왔던 스위스 기술센터의 이전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입수하여 국내유저들에게 공급할 것이다.

코사는 국내보다 한발 앞선 아이템을 취급하다보니 영업상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체될 지라도 보다 앞선 기술과 제품을 국내에 보급시키고자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할 것이며 포장산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더욱 이 분야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Ko]

이선하 기자